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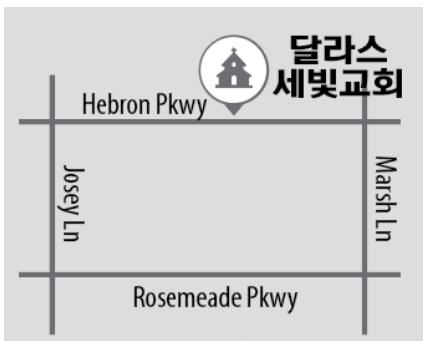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로 여는 하루> 화요일-금요일 아침 6시 (기쁨의 언덕으로)

1. 중보기도제목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1) 영혼구원을 위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 2)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 (서성언 선교사, 서순례 권사, 박세현 자매)
 - 3)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하여 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북한 선교 (갈렙선교회와 모퉁이돌선교회) 사역을 위하여
 - * 전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란, 팔레스타인, 수단, 미얀마,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위하여
 - * 탈북자 자녀들을 위한 사역을 하시는 엄목사님을 위하여
2.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끼쳐주실 이중원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아울러 특별 찬양과 통역을 해주신 정주일사모님 감사합니다
3. '글로벌감리교회'(GMC) 한미연회 평신도위원회(위원장 김성권 장로)가 변화하는 미국 이민법과 이민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날짜는 추후 공지합니다.
4. 연일 10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안내> Zelle : sebitkgmc@gmail.com (PNC bank)
Pay to the order of : SebitKGMC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 김형남 목사
협동목사 / 김승호 목사
반주자 / 권한임 사모
영상 및 음향 / 김찬미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교회
달라스 만나교회, 케냐 마구무 감리교회
Longview 감리교회, Arkansas 감리교회

표어 : 오직, 주님 밖에 없습니다.

2026년 8월 30일



세빛교회는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을 따라 복음의 빛을 비추며,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삶으로 드러내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과 은혜의 만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2201 E Hebron Pkwy, Carrollton, TX 75010
Tel: 945-360-0049 sebitkgmc@gmail.com
facebook: 달라스 세빛감리교회 / Youtube : 달라스 세빛감리교회

오전 11:00 / 오후 2:30

교회소식		인도자
예배초청		
경배와 찬양	1.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2. 우리 모일 때 (As we gather) 3. 오직 예수 뿐이네	세빛 찬양단
합심기도	감사와 회개의 기도	인도자
대표기도		담임 목사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다함께
봉헌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다함께
봉헌기도		인도자
성경봉독	마태복음 7: 21-29	인도자
특별찬양	나 두려워 않으리	정주일 사모
설교	반석위에 세운 교회	이중원 목사
찬양	난 예수로 충만하네	다함께
축도		담임 목사

온라인 새벽 예배

화요일 - 금요일 / 오전 6시 (유튜브: 기쁨의 언덕으로)

주일 예배 2부

주일 2:30 / 2층 (End Zone)

다음 주일 담당

8월 기도 순서

- 8 / 2 : 권한임 사모
- 8 / 16 : 김영님 자매
- 8 / 30 : 담임 목사
- 8 / 9 : 담임 목사
- 8 / 23 : 이지혁 집사

한 영혼의 무게와 우리의 책임



지난 한주간 한국을 비롯한 온세
계가 떠들썩했습니다. 네팔에서는
빙하 붕괴로 인한 홍수로 수많은 사
람들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게 되
었고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적
으로나 사회적으로 참으로 가슴 아
픈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뉴스
를 통해 보도된 실종 사건의 안타까
운 처리 실태를 보며 참 많은 생각
을 하게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
실은 여러 실종 사건들이 단지 서류
를 정리하고 실적을 채우기 위해 부
실하게 처리되었다는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과 아픔을 주었습
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가 마르
는 심정으로 행방을 알수 없는 가족

을 기다리고 있을 실종자 가족들의 눈물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
다.

예수님께서 양 아흔아홉 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거
친 들판을 헤매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효율성과 숫자
를 따지며 잃어버린 한 사람을 쉽게 지워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에서
는 단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나라와 사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돌보기 위함일 것입니
다.

성경은 우리에게 ‘청지기 정신’을 가르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소중한
것을 맡아 성실하게 돌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누구보다도 약하
고 힘이 없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돌보도록 책임을 맡은 이들은 모
두 공적인 청지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이웃의 생명을
돌봐야 할 청지기들조차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보게되
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타인의 아픔보다 나의 편안함과 이익을 먼저
챙기게 만드는 인간의 깊은 죄성이 빚어낸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
는 분이십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 보며 누군가를 탓하고 정치하기에 앞
서, 우리 인간이 가진 이기심과 죄성의 한계를 뼈아프게 마주하게 됩니
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무관심에서 벗어나, 단 한 사람의 생명
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따뜻한 사회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도 스스로를 돌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
서 천하보다 귀한 이웃의 영혼을 정말 천하처럼 소중히 대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신 말씀처럼, 고통받는 실종자 가
족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그들에
게 흘러가도록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